

영광 해상풍력, 지자체 인허가 지연...좌초 위기 맞나

전국 최대 규모 11GW 규모 추진 법적 권리자 100% 동의 完 제출 郡 공유수면 허가 지연에 PF 경쟁 관련 업체 사업 지연·줄도산 위기

전국 최대 규모인 11GW로 추진 중인 영광 안마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자칫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업의 키(key)를 쥔 영광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검토를 핑계로 인허가 최종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군의 이같은 행보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젖줄인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집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수조원대 국가적 에너지 사업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26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안마 해상풍력 관련 업체가 지난 23일 핵심 인허가인 케이블 단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해 주민 동의서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군에 제출했다.

당초 군은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면 조속히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업체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막상 업체측의 서류가 접수되자, 검토 등을 이유로 결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군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체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한 상황에서 이같은 행보를 보인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게 업체측의 입장이다.

실제 영광군은 지난 6일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비전 선포식'을 열고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 추진을 공식 선언하는 업무협약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이에 업체측은 "오는 27일까지 글로벌 제조사에 지불해야 할 터빈 계약금 지불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자칫 사업 자체가 1년 반 이상 지

연되거나 투자자 이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은 "사업 인허가는 해줄 계획이다. 다만 절차에 맞춰 적정성을 살피고 있다"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한 듯한 행보로 보이고 있어 눈치를 사고 있다.

또한 "인허가를 먼저 내주는 순간 업체로부터 이익공유를 얻어낼 군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미묘한 입장을 드러냈다.

영광군 고위 공무원 A씨는 "법적으로 연동시켜서는 안 되지만 이익공유는 군이 협상력을 가졌을 때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며 "법적 업무 처리와 이익공유 실현이라는 두 축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신속히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를 지자체장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의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발전업체 관계자는 "부당한 수준의 요구까지 100% 감수하며 권리자 보상을 마쳤는



영광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에 따른 자금 집행 중단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사진은 지난달 영광군청 앞에서 영광군 주민조합연합회가 '가짜어민'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 모습. /주성학 기자

데, 이제 와서 법에도 없는 협상력을 운운하며 허가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자 갑질"이라며 "해당 사업에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연혀 있는 만큼, 이번 인허가 지연이 자칫 관련 업계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주성학 기자



'아르코공연연습센터@강진'이 전국 공연예술연습공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아르코공연연습센터 강진, 문체부 장관상 '대상'

전국 운영 평가 1위...郡 단위 최초 전남음악창작소 연계 선순환 모델 신규 130건 유치·가동률 39% ↑

강진군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아르코공연연습센터@강진'이 전국 공연예술연습공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26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2025 전국 공연예술연습공간 지역운영기관 평가에서 전국 13개소 중 최고점인 98.93점을 기록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

서도 대관 활성화와 프로그램 고도화를 이뤄내며, 군 단위 최초로 문체부 장관상(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상의 핵심 비결은 전남음악창작소와의 획기적인 연계 협업 모델 구축에 있다.

재단은 대관 활성화 프로그램인 '예술 IN 강진'을 통해 창작팀, 마스터클래스, 무대유행 아카데미, 장기 레지던시 등을 폭넓게 운영했다.

연습센터가 공연 연습과 대관의 거점을 맡고 창작소가 음악 창작과 제작을 지원하면서, '창작-교육-기술-대관-성과 공유'로 이어지는 탄탄한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환경 개선과 무료 이용 등 다각적인 지원에 힘입어 130건 이상의 신규 이용 단체를

유치했으며, 공간 가동률을 전년 대비 39% 이상 대폭 끌어올리며 지역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창작의 장을 제공했다.

재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아르코공연연습센터@강진과 전남음악창작소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 육성, 창작 역량 강화, 공연기술 인력 양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체류형 레지던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태 대표이사는 "이번 대상 수상은 강진이 지역 공연예술 창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예술인에게는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군민에게는 더 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

고구마 등 12개 품목 대상 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영암군은 26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시름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 보장제도는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

격이 일정 기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영농 안전망 사업이다.

앞서 군은 올해 뚝옴재 캠페인 농가 39곳에 약 3천700만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하며 농가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뽕은감, 콩 등 총 12개 품목이다.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를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전일부터 오는 4월24일까지 한 달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 등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가 소득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상 농가들이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무안군-남도풍경연구소, 관광 홍보 협력 '맞손'

자연경관·자원 전국에 전파 역할 사진전 개최·SNS 홍보 등 전개

무안군이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전문 사진 홍보단체와 손을 맞잡았다.

26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수실에서 남도풍경연구소와 자연·문화·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무안의 주요 관광지 및 지역 축제 등을 사진 콘텐츠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연구소

가 보유한 탄탄한 민간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남도풍경연구소는 회원 수 8천300여명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수도권 등 전국 5개 전문 여행 출사 단체 소속 약 30만명에게 남도 풍경 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 연구단체다.

양 기관은 향후 주요 관광지 촬영을 비롯해 사진전 개최, 사진집 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전문 사진작가의 시선을 통해 무안의 숨겨진 매력이 전국으로 널리 퍼져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 발굴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함평군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 개최

내일부터 이틀간 문화체육센터 화예품 등 출품 450여점 전시

"2026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이 한국 출품의 최대 자생지인 함평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26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난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제전은 오는 28-29일 이틀간 함평문화체육센터 행사장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출품이 피어나는 고향, 함평"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화예품과 화예품 등 한국 출품 450여점이 대거 전시되며 전국 난 애호가들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출품자 가운데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

쳐 영예의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함께 1천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환경부장관상, 산림청장상 등 총 150여점을 선정해 시상하며 명품 축제의 위상을 더욱 높인다.

난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품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개막 하루 전인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평문화체육센터 행사장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명품 대제전이 한국 출품의 뛰어난 가치를 전국에 널리 알리고 난 문화의 대중화를 이끄는 뜻깊은 장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체계화 한다

70억 투입 무인도 등 사각지대 수거

완도군이 청정 바다를 지키고 어업인들의 쾌적한 생활 터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 해양쓰레기와의 전면전에 나선다.

26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총 70억원을 투입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체계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

군은 해류를 타고 밀려드는 외래 쓰레기와 페이퍼 등 환경 저해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발생부터 수집, 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폐각 친환경 처리 지원을 비롯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펼친다.

앞서 군은 지난해 친환경 정화 운반선을 동원해 6개 읍면 16개 도서 지역을 돌며 접근이 어려운 무인도의 해상 부유 쓰레기 400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양 환경 보전이 어민들의 생계는 물론 미래 세대의 자산을 지키는 중대한 과제인 만큼, 확보된 예산을 적체적소에 신속히 투입해 청정 바다 보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보호 캠페인

오는 29일까지 코엑스서 홍보

국립해양유산연구소가 수중 레저 인구 120만 명 시대를 맞아 대국민 수중유산 보호 인식 확산에 나선다.

26일 서울코엑스 산하 국립해양유산연구소에 따르면 오늘부터 2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 EX)'에 참가해 홍보 캠페인을 펼친다.

연구소는 이번 행사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이름이 정해진 해달 모티브의 공식 캐릭터 '달리'를 대중에게 처음 선보이며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홍보관은 수중 레저 활동가들의 눈높이에 맞

춘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실제 유물을 정교하게 재현한 전시품을 개방형으로 배치하고 발굴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간접 체험상자를 운영한다.

또한 바닷속에서 문화유산을 발견했을 때의 올바른 신고 절차와 현장 대응 요령, 관련 보상 및 포상 제도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관계자는 "그동안의 굵직한 수중 발굴이 국민의 자발적인 제보에서 시작된 만큼, 앞으로도 캐릭터 달리와 함께 해양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국민이 적극 동참하는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